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④

貪嗔癡愛等 八萬四千習氣毛病
탐진치애등 팔만사천습기모병
猶如金染上了 各種垢垢
猶如金染上了 各種垢垢
유여금염상료 각종오구
乃教誨用錘用刷 用水用布等來 洗刷
내교이용산용쇄 용수용포등래 세쇄탁
攄一樣
말일양
所以佛說的法 門門都是妙法
소이불설작법 문문도시묘법
都可以了生死 成佛道
도카이료생사 성불도

自佛拈花 至迦摩羅師 傳來東土以後
자불염화 지달마조사 전래동토이후
下手功夫 屢有變遷
하수공부 루유변천

종문은 참선을 주로 한다. 참선이란 마음을 밝혀 참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본래면목을 참구하여 돌리는 것을 요하니 이른바 제 마음을 밝게 깨닫고 본성을 투철히 본다는 이 법문은 부처님의 열화시중에서부터 달마조사가 동쪽으로 전법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손을 댄 공부방법이 여러번 변천했다.

在唐末以前的善德
재당송이전적선덕
多是由一言半句 就悟道了
多是由一言半句 就悟道了
다시유일언반구 취우도료
師傳的傳受 不過以心心
사도간적전수 불괴이심인심
并沒有什麼真法
并沒有什麼真法
병물유십마살법
平日參禪 也不過隨方解轉
平日參禪 也不過隨方解轉
평일참선문수담 아불과수방해박
因病于藥而已
인병유약에기

탐진치 갈애등 팔만사천 습기로 자란 병이 마치 금병에 각종 더러운 때를 입힌 것이라 이에 깔고 닦고 물이나 헹감등으로 씻고 닦고 비벼서 제 모습으로 가르친 것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문마다 모두 묘법이요 모두가 생사를 해결해 성불하는 길인 것이다.

只有當機不當機的問題
지유당기부당기적문제

팔만사천법문은 생사 해결하는 묘법 근기따라 한 문에 깊이들면 참성품 봐

不必強分 法門高下
불필강분 법문고하
流傳中國最普遍的法門 爲宗教律淨密
유전중국최보통적법문 위종교율정밀
這五種法門 隨各人的 根性和興趣
這五種法門 隨各人的 根性和興趣
저오종법문 수각인적 근성화흥취
任行一門都可以
임행일문도카이
總在一門深入 歷久不變 就可以成就
총재일문심입 력구불변 취가이성취

인병여약이키

당·송 이전의 선지식들은 한마디 말이나 계승 반구절에도 도를 깨달은 경우가 많았다. 사제간에 법문 전수하는데도 마음으로써 마음을 인가하는데 그쳤으니 (따로) 어떤 실다운 법이 있음을 인정치 않았다. 평소 물고 대답하고 경우에 따라 때로는 풀어주고 때로는 묶는데 불과했으니 병을 보아 약을 줄 뿐이었다.

宋代以後 人們的根器遜劣于
송대이후 인민적근기루열자
講了做不到
講了做不到
강료주부도

譬如說 放下一切 善惡莫順
譬如說 放下一切 善惡莫順
비여설 방하일체 선악막사
但總是放不下 不是惡善 就是惡惡
但總是放不下 不是惡善 就是惡惡
단총시방불하 부시사선 취시사악

송대 이후에 사람들의 근기가 하열하여 가르쳐도 이루지 못했다. 비유컨대 일체를 놓아라, 선도 악도 사랑하지 말라 말해주어도 모든 것을 놓지 않고 선은 생각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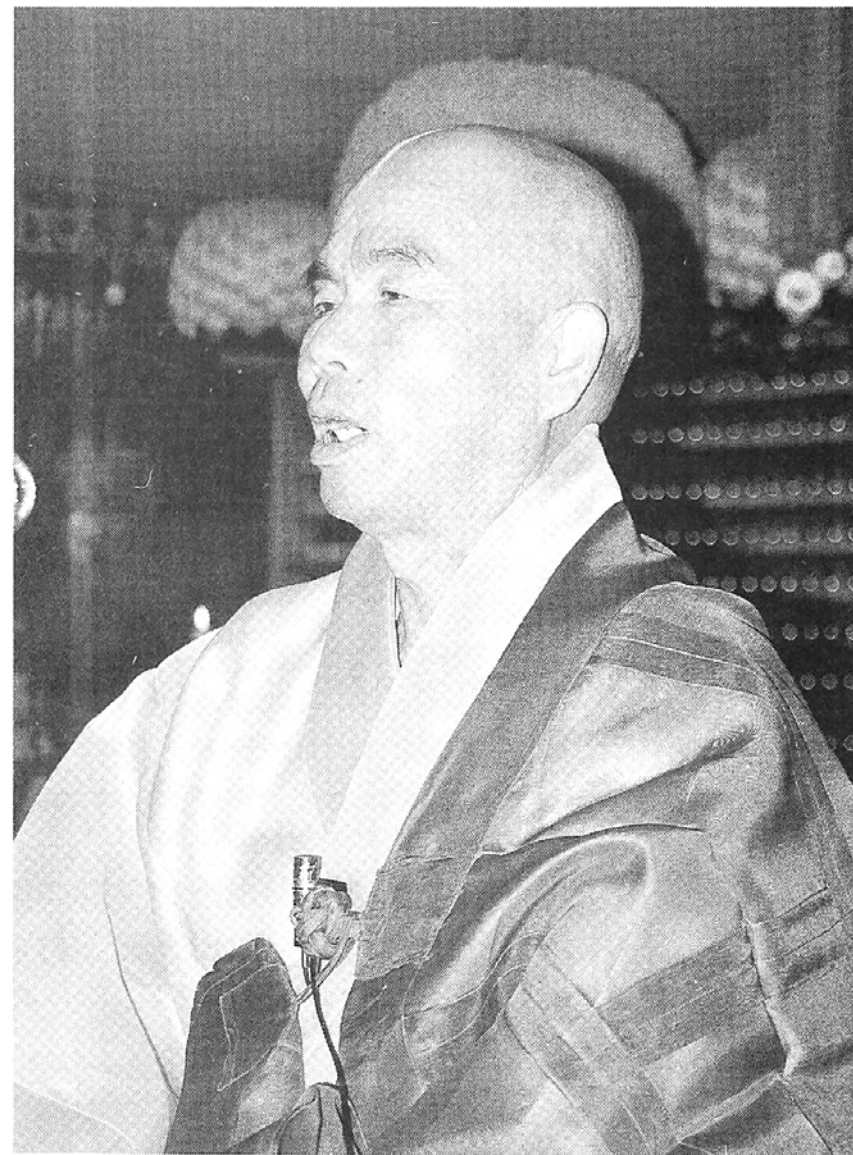
龍眼

宗門主參禪 參禪在 明心見性
종문주참선 참선재 명심견성
就是要參透 自己的本來面目
就是要參透 自己的本來面目
취시요참투 자기적본래면목
所謂明悟自心 徹見本性 這箇法門
所謂明悟自心 徹見本性 這箇法門
소위명오자심 철견본성 저개법문

“실천없는 골백번 서원보다

지상법석

월성스님 월성선원 선원장



약력

- 1934년 보은 생
53년 해인사로 출가
백양사, 통도사, 해인사, 봉암사 등 선원서 정진
서울 영등포와 경기도 송탄의 성관사 주지역임
現 전북 장수에서 성관사 중창 불사 진행

악인욕리지 若人欲了知
삼세일체를 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應觀法界性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절에 다닌다는 사람치고 이 말을 안들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 모두가 마음의 지은바임을 알라는 (화엄경)의 요지인데 이 이상 명확한 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짓고 마음이 허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자리에서 세상이 생기고 멸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부처가 되고 마음을 잘못 쓰면 악귀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는 것이 모두 이 마음자리 밝히는 일로 귀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잘못 쓰는 일에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남 어가지 않는 것 보다 쉽다는 게지요. 청정심을 내야 할 것인데 삼독심이 더 빨리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거든요. 얼른 삼독심을 뒤로 제쳐 버리고 청정심을 내야 하는데 그냥 삼독심에 빠져 그걸 제쳐낼 용기를 못내는 겁니다. 수행이 안된 탓이고 근기가 약한 탓이라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근기에 맞는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마음을

“내 마음 한번 죄
하나의 지옥짓고
한번 청정심 내면
하나의 극락이루니
지옥과 극락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관하는 수행을 쌓으며 근기를 높이고 스스로 청정법신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삼독심은 탐(貪) 진(瞋) 치(癡)를 말하는 데 이것을 세가지 악의 불이라는 곳에서 삼화(三火)라고도 합니다. 또 이 세가지 마음은 중생을 악업의 구렁텅이로 끌고가는 근원이 되므로 삼불산근(三不善根)이라고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탐내는 마음과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포악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세가지의 불만개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서로 나눠 갖고 화합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것이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두고 나의 것이라고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든 그 몇푼의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걸 주고 뭘 하나 사버리면 그 돈은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산 물건 역시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물건은 그만 두고라도 지금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육신인들 여러분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나의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바로 그놈이 내것입니다.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청정심과 삼독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분별하고 사랑하며 그대로 본래진면목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복잡한 마음의 실체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찾아 그것 이외의 것은 무엇도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 보자고 이렇게 법회도 열고 설법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탐을 내거든요. 탐심이 기승을 부리면 그것을 억누르고 제어 하기 보다는 그냥 그 놈의 탐심이 부러대는 기승에 끌려다 가고 마니까 세상이 혼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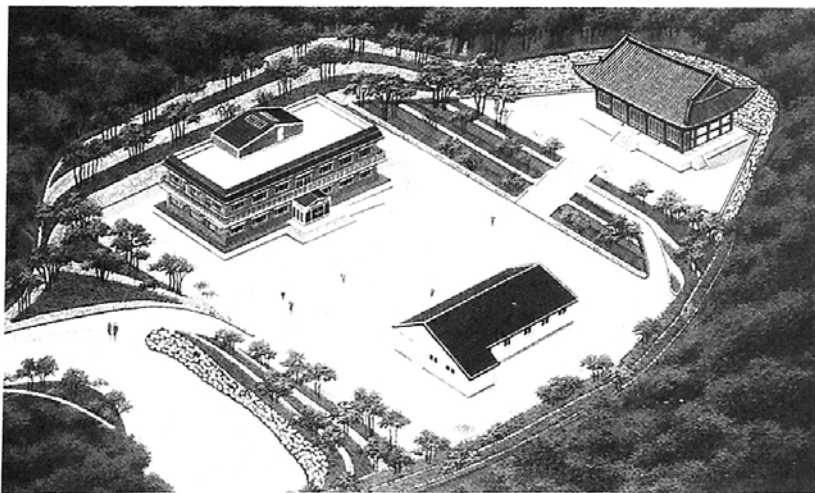
지는 것 아닙니까. 진실과 치심을 누르지 못한 결과가 이 세상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을 어렵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어렵다 난장판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도 그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극락세계라고 말하든 뭐 합시다. 이 세상이야말로 극락세계여서 사람이 사람을 믿고 아끼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불자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극락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참다운 극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삼독심과 불길을 끄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한 평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다고 말하는 것은 더 긴 시간에 비해 짧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짧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에 비하면 인간의 평균수명은 얼마나 긴 것입니까. 인생의 길고 짧음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일생동안 무척이나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미래의 내 모습과 인연을 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과정은 온전히 후생의 나를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사소한 행동도 후생의 어떤 인연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가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사

다보수련원 개원 안내

◆ 多寶修練院 준공법회 및 고 장경호 거사 흥상 제막식 ◆



귀의상보하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청정수련도량 多寶寺 多寶修練院의 건립공사를 마치고 준공법회 및 고 장경호거사 흥상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병행합니다.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 돈 각

일시: 불기 2540년 7월 20일(토) 오전11시
장소: 다보사 다보수련원

■ 당일 아침 7시 정각에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불교방송) 앞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합니다. 동참하실 불자님은 7월 15일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02-719-1855)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다보수련원 개원 기념 '96 여름수련회

다보수련원의 개원을 기념하여 모든 불자들이 스스로 청정해지겠다는 서원을 통해 지계와 보시의 실천지침을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신행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전개되고 있는 “청정운동-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96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Table with 6 columns: 구 분,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 대 상, 동참금. Rows include 지도자수련회, 1차 수련회, 2차 수련회.

◆ 초빙강사

이기명 박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한 나의 제언” 권기중 박사(동국대 교수) “대승 불교의 요체” 김정민 선생(소설 '담' 작가) “부처님 당시 수행법의 실제”

◆ 준비물

- 1. 필기구 2. 세면도구 3. 운동복 4. 동참금

◆ 참가신청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02-719-1855, 과산 다보수련원 0445-33-7789

다보수련원 이용안내

불교신행단체의 이용뿐만 아니라 불자가정과 일반인에게도 형식 열려 있습니다. 이용 15일 전 까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는 30일전)